

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추진내용 및 사례



01_건설현장 안전교육 활성화

02_건설안전 릴레이 캠페인 실시

03_건설안전문화 확산

04_스마트 안전관리 사례

05_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

01

건설현장 안전교육 활성화

» 건설현장 근로자 맞춤형 안전 교육 활성화

- 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필수

1 지역별 교육실시

- 지역별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교육 접근성을 고려, 금년 4월부터 16개 광역 지역별 안전교육 실시 중
* 대한건설협회·전문건설협회, 건설기술교육원 공동개최
- 현장 사례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이해도 제고

강원 (4.2~4) 강릉, 원주, 춘천



부산 (4.22)



'25년 교육일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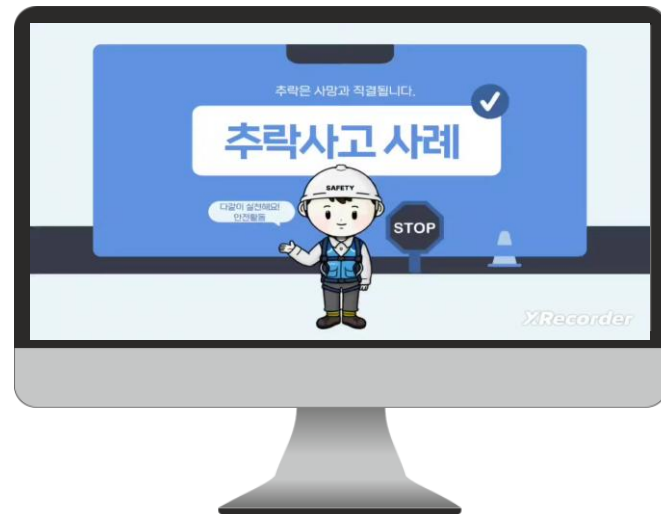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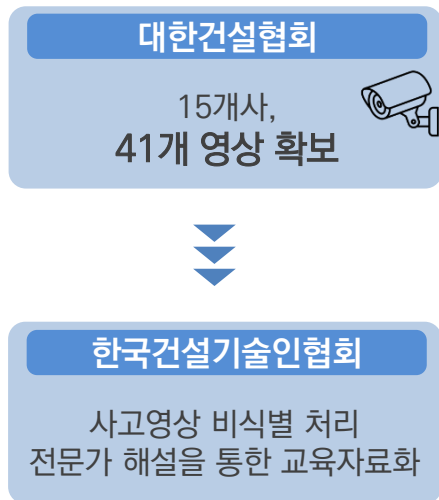
월	실시지역	월	실시지역
4월	강원, 부산	8월	충북
5월	서울, 경남, 제주	9월	
6월	광주, 대전, 울산	10월	인천, 경기, 전북
7월	대구	11월	충남, 경북, 전남

01

건설현장 안전교육 활성화

2 CCTV 사고영상 확보

- 기존 문자위주, 단순 그림형 교육으로는 인식 개선 한계
- 비숙련·외국인 현장근로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확보, 교육자료로 활용



(교육용 영상콘텐츠로 개발, 전 건설업계 현장 안전 교육시 활용 예정)

✓ 실제사례를 통해 ‘근로자의 체감을 극대화’ 하여
사고위험 실질적 인식 및 행동변화 유도 기대

02

건설안전 릴레이 캠페인 실시

» 건설업계의 자발적 안전캠페인을 통한 공감대 형성

-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실질적 안전환경 구축

1 캠페인 추진 개요

- 종합·전문건설업체 12개사가 1주일씩 캠페인 실시
 - 삼성물산(4.14~18), 현대건설(4.21~25), 대우건설(4.28~5.2), GS건설(5.7~9), SK에코플랜트(5.12~16), 한화(5.19~23)
 - 전문건설업계는 5월 하순부터 실시 예정
- 활동 내용 : 형식적 행사 탈피
실질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 실천
 - CEO 등 경영책임자가 현장 방문, 가설비계, 안전감시 사각지대 등 점검
 - 현장근로자 인터뷰를 통한 안전 취약점 발굴 및 조치
 - 안전표지판 및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

2 추진 현황

- 삼성물산·현대건설 실시
 - 대우 등 참여업체 캠페인 진행 예정



» 건설안전문화 인식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

- 언론기고 등 지속적 의식개선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

1 안전의식 개선노력

- 협회 홈페이지에 월별 안전테마 팝업 운영중



- 매월 첫째 월요일을 ‘안전 점검의 날’로 지정
- 전 회원사에 안전점검 실시 안내

“함께 하는 건설, 따뜻한 세상”



대한건설협회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제목 매월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협조공문 안내요청

(생략)

- 이에 안전문화 확산의 일환으로, 귀 시·도회는 관내 회원사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점검 및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*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안전점검 요청 공문을 안내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작업장 청리정돈 철저, 개인보호구 착용지도 및 안전교육 강화, 안전시설 설치, 비계 등 가시설 안전점검 및 개구부 등 위험요소 확인,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 준수 등

- 건설안전 전문가 언론기고 등 안전문화 여론형성



[사설]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추락사, 예방이 최선

기사일자 2025-04-09 04:00:16

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.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을 진행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. 지난 5년간 건설재해로 1211명이 사망했고 이 중 절반 이상(622명)이 추락 사고였다. 올해도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. 지난 3월10일 경기 평택 공동주택 신축 현장과 25일 충남 아산 오포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. 추락 사고는 대형건설사 현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. 주로 작업 발판이나 통로용도로 설치된 임시 가설구조물(비계)에서 추락한다. 특히 외부마감 작업 등 안전 확보가 힘든 마감공정에서 발생이 많다. 때문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, 안전도착용, 안전대 착용, 추락방호망 설치 등 준비 단계에서의 예방이 필수적이다. 작업 전에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제도를 지키면 추락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.

이런 가운데 당사자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. 대한건설협회 중심이 돼 오는 14일부터 6주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. 삼성, 현대, 대우, GS, SK, 한화 등 대형건설사가 앞장선다. 각 사의 CEO가 매주 건설현장을 순차 방문해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을 점검한다. 이번 캠페인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매년 10% 이상 단계적 감소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'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'의 일환이다. 7월4일까지 계속될 캠페인에는 15개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회원사 등이 참여한다. 건설현장 안전 강화는 1회성 캠페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. 발주자, 시공사, 협력사 등 현장 관계자 모두가 몸매 배도록 안전 의식을 익혀야 한다. 안전의 1차적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. 말을 몰기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안개 줄 수는 없지 않은가. 근로자는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동시에 최일선 안전감각담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.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.

03

건설안전문화 확산

2 유관기관 협력강화

- 건설기술교육원 등 4개 기관 공동으로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 개최
 - 일시 및 장소 : 3.28(금),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
 - 내용 : 추락사고 저감방안, 안전교육 개선방안



- 건설동행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업 및 적극 지원
 - 건설동행위원회는 올해 초 추락사고 아이디어 공모전 기 실시



- 건설동행위원회가 하반기 추락사고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시 적극 지원
(공모전 안내, 사례집 공동제작 및 활용 등)
- 건설기술인협회, 건설기술교육원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 체계를 구축, 운영 예정

04

스마트 안전관리 사례

»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사례

-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사례 공유

1 타워크레인 충돌 방지

- 센서를 통해 타워크레인 위치, 움직임 감지 및 모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사각지대에서의 충돌 사고 예방



- ➡ 삼성물산, 현대건설, GS건설, 포스코이앤씨, SK에코플랜트 등 활용중

3 스마트 안전조끼

- 추락시 가속도를 감지, 에어백이 작동하여 근로자 보호



- ➡ 삼성물산, 현대건설, 디엘이앤씨, 현대산업개발, 한화, 이수건설 등 활용중

2 무인로봇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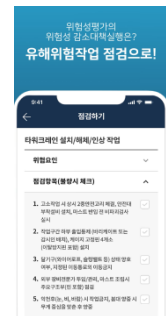
- 4족보행 로봇 '스팟'으로 위험지역 사전 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



- ➡ 현대건설, 포스코이앤씨, GS건설 등 활용중

4 모바일 플랫폼

- 자체 개발 모바일 안전어플리케이션으로 위험구역 사전안내 및 위험구역 진입시 알림 등으로 사고 예방



- ➡ 삼성물산, 현대건설, GS건설, SK에코플랜트, 한화 등 활용중

04

스마트 안전관리 사례

5 드론

- 고소작업구간 등 현장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근로자 안전수칙 모니터링으로 사고 예방



- ➔ 삼성물산, 현대건설, 대우건설, GS건설, 신세계건설 등 활용중

7 스마트 안전모

- 웨어러블 카메라, 센서 등을 안전모에 부착, 위험요소 파악 및 불안전 행동감지



- ➔ 삼성물산, 현대건설, 디엘이앤씨, 포스코이앤씨, 롯데건설 등 활용중

6 스마트 CCTV

- 고성능 영상을 기반으로 AI분석을 통해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요소 실시간 파악 및 조치



- ➔ 삼성물산, 현대건설, 디엘이앤씨, 대우건설, 한화 등 활용중

8 위험구역 경보장치

- 개구부, 단부 등 위험구역 접근시 경고를 통해 추락위험 방지



- ➔ 삼성물산, 현대건설, 디엘이앤씨, GS건설, SK에코플랜트 등 활용중

05

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

»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- 지속적인 건설안전사고 저감 및 예방을 위해서는 자발적·적극적 참여 필요

1 교육지원 확대

- 현장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강화
 -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의 효과적 수단은 VR 등 체험교육이므로 향후 교육시설 확대 필요
 - 중소기업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이동식 교육장, 체험교육 기회 확대 및 현장 맞춤형 교육 필요



3 자발적 참여 유도

- 건설업체의 적극적 안전 추진 유도 위한 인센티브 제공
 - 규제 및 처벌 위주보다 예방 위주로 정책전환 필요
 - 적극적 안전활동이 추진되도록 직접비용 계상 및 인센티브 부여 필요

2 스마트 장비 지원

-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강화
 - 스마트 안전장비는 비교적 고가의 장비로서, 일부 장비는 대형건설업체도 초보적 단계로서, 중소건설업체는 접근에 한계
 - 협회는 중소기업에 위험구역 접근 알림장비, 개구부 개폐 감지기 등 스마트 안전장비 대여서비스를 지원중
* 25.4월 현재, 14개 현장 42대 지원, 2차 지원사업 실시 예정
 - 다만, 예산 부족으로 품목 및 수량에 한계



위험구역 접근
알림장비



개구부 개폐감지기

- 정부 주도 스마트 안전기술 표준화 및 보급확대를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 보편화 지원 필요

감사합니다.